



↑ 내부의 적  
 ↓ 밤이슬(왼쪽), 새벽닭

## 단단한 철에 생명을 불어넣다

김성석 개인전, 내일부터 6일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개최

닭·개 등 친숙한 동물 의인화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 대신 전달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7일부터 12일까지 '김성석 개인전'이 열린다. 김성석은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14번째 개인전이다. 이외에도 국내 아트 페어 및 2인전, 다수의 단체전과 다양한 기획·초대전, 상해 아트 페어(2018, 2019, 중국 상해), Art Plus(2019, 중국 상해)에 참여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오랫동안 숙련된 철 작업을 해왔다.

작업은 뜨겁게 달군 철을 조각내고 두드려 모양을 내고, 갈고 이어 붙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작가는 작품의 재료로 철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단단하고 강한 철을 제련해 생명을 불어넣고 이를 작품으로 탄생시켰다는 희열은 작가에게 자부심으로 작용한다.

대학 시절 풍요롭지 못했던 주머니 사정으로 선후배들이 쓰고 남아 버려진 철물을 주워 모아 작업에 쓰기 시작한 것이 철과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가장 손에 익숙하고 편한 소재가 되었지만, 철 재료를 가공하고 취급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작가는 강한 철을 불에 달궈 더 강함으로 이겨내는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도 철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타인이 볼 때는 변하지 않은 채로,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일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고, 작업은 아주 조금씩 어른에 가까운 곳으로 이끈다. 손에 쥐어진 철 조각들은 과거보다 부드러워졌고, 그것에

담긴 이야기들은 담금질하는 만큼 더 단단해졌다. 작업장에서 마음이 미숙한 날에는 작가보다 철이 더 사나워진다. 이는 20년을 만져온 철이 주는 가르침이다. 작업은 마음공부다. 작업은 높이 오르기 위한 디딤으로 작가를 돕지 않으며, 그저 진솔하게 살게 하고, 세상을 견뎌내는 지혜를 준다. 멀리 보게 하고, 깊이 들여다보게 하며 결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보는 이들의 이목을 끄는 유틸 있는 작품 제목들은 작가가 직접 속담을 연구해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인 닭, 개, 말, 돼지 등을 의인화하여 작품 속에 등장시킨다. 이 동물들은 풍자와 해학을 담아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한다. 작가는 동물들을 통해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 이야기를 더욱 강렬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허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통로에 도움을 준다. /김진성 기자

## 영화 소재 창작 뮤지컬, 군산에

24일 군산예술의전당서 '하모니' 무대  
 '디바' 윤복희·시민합창단 함께 참여

군산예술의전당이 오는 24일 오후 3시 대공연장에서 영화 '하모니'를 소재로 창작한 뮤지컬 '하모니'를 선보인다.

5일 시에 따르면 국비공모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뮤지컬 '하모니'는 군산시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공연이다.

뮤지컬 '하모니'는 절망과 고통이 존재하는 교

도소에서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가진 채 살아가는 여성교도소 수감자들이 희망을 품고 노래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 활동중인 윤복희와 짙은 호소력의 목소리 뮤지컬 배우 강효성, 진도희 등이 출연한다.

하모니는 영화에서 받았던 감동을 생생한 라이브 뮤지컬로 만날 수 있어 스크린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전율을 느낄 수 있으며, 영화 배우들과 뮤지컬 배우들이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고 있어 기대감을 불러 모은다.

이번 공연은 시민 참여형 뮤지컬로 지역에서 활동중인 군산시민합창단과 군산신실교회 선



당관리과장은 "이번 뮤지컬은 시민들이 프로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무대에 오를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이라며 "감동이 배가되며 절망 속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을 보며 마음의 치유를 받기 바란다"면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교합창단, 군산부설초 푸른소리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R석 4만원, A석 3만원으로 오는 17일까지 조기예매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유자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뮤지컬은 시민들이 프로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무대에 오를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이라며 "감동이 배가되며 절망 속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을 보며 마음의 치유를 받기 바란다"면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시는 클래식음악제인 '2019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지난 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카를로스 빅토르 붐고 주한 가봉 대사, 하짐파미 주한 이집트 대사 등 주요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 전주 담은 클래식에 '폭'

아프리카 대사들,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참석  
 신비롭고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의 향연에 매료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이 전주다움을 담은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의 향연에 매료됐다.

전주시는 클래식음악제인 '2019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지난 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카를로스 빅토르 붐고 주한 가봉 대사, 하짐파미 주한 이집트 대사 등 주요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한 국적과 시대의 작곡자들의 곡들이 연주해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31일 전통성당에서 열린 비바체 실내악 축제의 개막식은 전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청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조희남 비바체 실내악축제 운영위원장은 "비바체 실내악축제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나, 매우 수준 높은 음악회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물과 같은 공연"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문화도시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찾는 이유가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함인 만큼, 전주한옥마을과 전통문화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바체 실내악축제가 한국전통음악과 더불어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접목해 문화도시 전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세계적인 실내악공연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이들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대중적인 작곡가 외에도 훔멜, 레이프 본 윌리엄스, 후고 볼프, 아른 코플란트 등 다양

한 국적과 시대의 작곡자들의 곡들이 연주해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31일 전통성당에서 열린 비바체 실내악 축제의 개막식은 전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청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조희남 비바체 실내악축제 운영위원장은 "비바체 실내악축제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나, 매우 수준 높은 음악회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물과 같은 공연"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문화도시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찾는 이유가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함인 만큼, 전주한옥마을과 전통문화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바체 실내악축제가 한국전통음악과 더불어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접목해 문화도시 전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세계적인 실내악공연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